

유튜브서 묻고, 캠핑장서 면접... SKT, 5G시대 파격채용

SKT, 7일 유튜브 신입공채 설명회

채용전형 등 관련정보 충실히 담아 3부 걸쳐 직원들이 직무소개 진행

SK텔레콤이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를 이끌어 갈 우수 인재 확보에 나선다.

SK텔레콤은 '2019 하반기 신입 공채 채용' 시즌을 맞아 취업준비생에게 채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7일 온라인 채용 설명회 '티커리어캐스트'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티커리어캐스트'는 7일 오후 2시부터 SK텔레콤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사전 제작을 통해 취업준비생들이 주로 묻는 채용 전형이나 직무 관련 정보를 충실히 담고 채용 담당자가 방송 중 올라오는 질문에 실시간 답할 계획이다.



'캐주얼 캠핑' 콘셉트로 채용담당자와 주니어 구성원들이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SK텔레콤

이번 온라인 설명회의 콘셉트는 '캐주얼 캠핑'이다. 기존의 경직되고 형식적인 설명회 컨셉에서 벗어나 야외카페와 캠핑존을 배경으로 입사 5년차 이내의 주니어 구성원들과 채용담당자가 채용 전형 및 직무 관련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구성했다.

직무 소개는 3부에 걸쳐 진행된다. 1

부에서는 ▲컨슈머 마케팅 ▲클라우드 사업 기획·개발 ▲글로벌 프로젝트 마케팅·제휴 직무를, 2부에서는 ▲통신 인프라 ▲코어·플랫폼 인프라 직무를, 3부에서는 ▲신사업·투자전략 ▲모빌리티 서비스 기획·마케팅 직무를 소개한다.

또 직무 담당자가 자신의 직무를 가

장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상징적인 물건을 선택해 취업준비생의 눈높이에 맞춘 직무 소개를 하거나 채용 담당자가 이심전심 퀴즈 게임의 형식으로 지원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이색 코너도 마련했다.

채용담당자가 실시간 댓글을 통해 취업준비생들과 직접 소통 하는 시간도

가진다. 채용 전형이나 직무 관련 궁금증뿐만 아니라 기업문화부터 직원 복지·교육 정보까지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K텔레콤은 5G와 AI를 비롯한 뉴 ICT 시장을 선도해 나가며 핵심 인재 확보에도 집중하고 있다. 이번 채용에서는 'Telco Service Management', 'ICT Infra Management', 'ICT Sales-Marketing', 'ICT Service Planning' 등 4개 분야 신규 인재 영입에 나선다. 소프트웨어·AI·데이터 등 연구개발 관련 전문 인재를 수시 채용으로 모집한다. SK텔레콤 공식 채용사이트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지원자는 오는 16일 24시까지 SK 채용 홈페이지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채용설명회 영상은 SK텔레콤 공식 유튜브 채널뿐만 아니라 SK 채용 홈페이지에서도 다시 볼 수 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KT, 80만원대 5G 스마트폰 '갤럭시 A'

전국 매장·온라인서 오늘부터 판매

5세대(5G) 이동통신 스마트폰 최초로 80만원대 가격의 5G 단말이 나왔다. KT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A시리즈의 첫 번째 5G 스마트폰 '갤럭시 A90 5G'를 전국 KT 매장 및 공식 온라인채널 KT샵에서 4일부터 판매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갤럭시 A90 5G는 화이트와 블랙 총 2가지 색상이다. 주로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온스킨 지문인식 기능과 삼성페이가 탑재됐다. 기존 5G 스마트폰 대비 저렴한 가격인 89만9800원(부가세 포함)이 특징이다.

KT는 KT샵에서 갤럭시 A90 5G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갤럭시 A90 5G 정품 케이스와 옴다움 디퓨저가 포함된 기프트박스 ▲SD 메모리카드 ▲보조 배터리 ▲블루투스 이어폰 등 사은품 4종 중 하나를 제공한다. /김나인 기자

직원아이디어 키워 모빌리티 혁신 이룬다

현대모비스, 테크 챌린지 등 운영 월·분기단위 아이디어 평가·포상

현대모비스가 평소 임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신기술, 신사업에 대한 고민을 회사 차원의 전략 과제로 발전시켜 집중 개발하는 기술 육성 전문 프로그램을 전면 시행한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직원들의 기술 개발 역량을 높여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에 필요한 혁신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현대모비스는 3일 직원들이 신기술 아이디어를 내고 구체화하는 과정을 회사가 지원하는 '테크 챌린지', '스타트업 챌린지', '아이디어 제안 게시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테크 챌린지는 직원들이 자율주행과 커넥티비티 등 미래차 분야 차세대 기술을 제안한 뒤 일정 기간 집중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존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별도 조직과 공간에서 연구 개발에 전념하도록 한다. 근무시간도 선택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프로젝트 기간은 기본 1년이고, 기간과 지원비는 과제의 종류에 따라 조정된다.

현대모비스는 테크 챌린지 1기 아이디어 공모를 올해 초부터 해서 차량 내 AV



현대모비스 '테크챌린지' 1기에서 최종 선발된 연구원들이 별도로 마련된 전용 사무 공간에서 신기술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N(오디오·비디오·내비게이션) 설정을 무선업데이트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술에 관한 1개팀을 선정했다.

스타트업 챌린지는 사내 스타트업을 키우는 것으로, 상반기 선발 과정에 29개팀이 참여해 비대면 방식의 택송 서비스 플랫폼과 태양광 패널 청소로봇 구상을 낸 2개팀이 뽑혔다.

이들은 2년간 사업화 과정을 밟게 되며 회사는 교육 세미나, 조직(팀) 구성, 사업계획서 제작, 기술 육성 등 창업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한다. 아이디어 제안 게시판을 직원들이 신기술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하는 프로그램이다.

회사는 월, 분기 단위로 아이디어를

평가해 포상한다. 5월부터 운영한 게시판에 현재 200건 가량 등록돼 있다.

현대모비스 고영석 기획실장은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의 경쟁력은 창의적 아이디어에서 출발한다"며 "임직원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초 오픈이노베이션 담당 조직을 신설하고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창의력을 발산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만들어왔다. 향후에도 미래 신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하면서 직원들의 연구개발 역량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

스타일에 안정감 더한 'SUV 명품'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GLE 출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3일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더 뉴 메르세데스-벤츠GLE(사진)'를 선보였다. 이번에 선보인 GLE 모델은 지난 1997년 출시 이후 전 세계적으로 200만 대 이상 판매되며 메르세데스-벤츠 SUV 중 가장 사랑받는 모델의 신형이다.

더 뉴 GLE의 긴 휠베이스와 짧은 오버행, 큰 플러시-피티드 휠로 이루어진 차체 비율은 어떤 주행 환경에서도 스타일리시함과 안정감을 제공하며 뉴 GLE의 전면부 디자인은 강력한 힘을 보여준다는 평을 받고 있다.

더 뉴 GLE 450 4MATIC에 탑재된 멀티빔 헤드램프는 차량의 디자

인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안전성도 높였다. 개별 조절 가능한 84개의 LED가 장착된 적응형 멀티빔 LED 헤드램프는 교통 상황에 따라 반응하며 운전자의 시야를 충분히 확보해 주고, 반대편 차량 운전자의 눈부심을 방지해 준다.

더 뉴 GLE는 80mm 길어진 휠베이스로 더 넓어진 실내 공간을 제공하며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MBUX'는 지능형 음성 컨트롤 시스템을 갖췄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GLE 450 4MATIC 가솔린 모델과 GLE 300d 4MATIC 디젤 모델을 먼저 선보인다. 더 뉴 GLE 450 4MATIC과 더 뉴 GLE 300d 4MATIC의 가격은 부가세 포함해 각 1억1050만원, 9030만원이다. /정연우 기자 ywji964@



LG전자 '8K 올레드 TV' 20개국서 첫 선

독일·영국·프랑스 등 연내 출시

LG전자가 세계 최초 8K 올레드 TV를 앞세워 해외시장 공략에 본격 나선다고 3일 밝혔다.

LG전자는 지난 7월 국내시장에 가장 먼저 출시한 8K 올레드 TV 'LG 시그니처 올레드 8K'를 이달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을 시작으로 10여 개국에 출시한다. 8K 해상도와 나노셀 기술

을 적용한 75인치 슈퍼울트라 HD TV는 연말까지 약 20개국에 출시된다.

LG 시그니처 올레드 8K는 8K(7680×4320) 해상도, 올레드 TV 중 최대 크기인 88인치를 모두 갖춘 제품이다.

또한 독자 개발한 화질 칩에 딥러닝 기술을 더한 '2세대 인공지능 알파9 8K' 프로세서를 탑재해 화질, 사운드를 알아서 최적화한다.

2세대 인공지능 알파9 8K는 원본 영

상의 화질을 스스로 분석한 결과에 따라 영상 속 노이즈를 최대 6단계에 걸쳐 제거해, 어떤 영상을 입력하더라도 생생한 화질을 보여준다. 2K(1920×1080), 4K(3840×2160) 해상도 영상을 입력하더라도 8K에 가까운 수준으로 보여준다.

이 프로세서는 2채널 음원을 마치 5개의 스피커로 들려주는 것처럼 가상의 5.1 서라운드 사운드로 바꿔주고, TV가 설치되어 있는 공간에 최적화된 입체음향을 들려준다.

/구서윤 기자 yuni2514@